

# 한국교회사에 있어서의 오종덕(吳宗德)목사의 위치에 대한 재조명

Reappraisal of Pastor Jong-Duk Oh  
concerning his place in the Church History of Korea

전 광 식 교수 | 고신대, 신학과  
Prof. Dr. Koang-Sik Chon

1. 들어가는말: 오종덕목사에 대한 자료와 과거의 연구	_ 16
2. 역사적 위치	_ 18
1) 박해의 시절과 양자택일의 길	_ 18
2) 일제치하 오목사가 걸어 온 길	_ 18
3) 오종덕목사와 제3의 길	_ 20
3. 오목사의 삶과 사역	_ 23
1) 삶의 시기	_ 23
2) 사상과 학문	_ 23
3) 일과 사역	_ 24
4. 오종덕목사의 성경해석과 신학	_ 25
1) 오목사의 성경연구	_ 25
2) 성경관과 신학	_ 27
3) 성경연구의 특징	_ 29
5. 결론	_ 31

주요어 | 오종덕목사, 신사참배, 출옥성도, 금강산파, 성경연구, 성경적 경제사상, 기인, 한국교회100년, 은둔, 교회설립, 경북노회, 고려고등성경학교

#### 요약문 |

일제 치하와 해방된 교계를 이끌던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세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신사참배로 영적 배도의 길을 걷던 신사참배파, 둘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당하고, 투옥되었던 소위 출옥성도파, 셋째로 현실을 떠나 은둔하여 기도생활과 성경연구에 주력한 소위 '금강산(金剛山)파'가 있었다. 이 세 부류 가운데 오종덕 목사는 아마 금강산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강산파와 달리 오목사는 경제적 삶을 포기하기 아 니하며, 또 기도와 신비체험보다 성경연구에 집중했으며, 나아가 영성운동보다 성경을 교육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력하였다. 오목사의 사상과 학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경연구, 둘째는 경제 철학이다. 성경연구에 있어서 오목사는 성경의 심오한 뜻과 조적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런 해석의 원리는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경제철학에서 오목사는 먼저, 그 방법에서는 많이 벌고 적게 쓰기, 둘째, 그 목적에서는 그렇게 하여 남겨서 주의 일하는 데 사용하기, 그리고 셋째, 그 태도에서는 경제 문제에 있어 공사(公私)가 분명했다. 이러한 오목사의 은사, 즉 성경연구와 경제자립은 현실에서 바로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것이 곧 첫째는 교회건립이요, 둘째는 신학교 건립이었다.

## Abstract

*There were three main streams among the leader groups of the Korean church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thereafter through the June 25th Incident of Korea: firstly, the compromised and idol-worshipped pastors for Shinto (group pro Shintoism), secondly, the resisted and struggled pastors against Shinto (group contra Shintoism), thirdly, the pastor retired from the world.*

*In my opinion, Pastor Oh comes under the third type which is called 'Kumgang mountain group'. The anchorites of this group concentrated all their lives on the prayer and spiritual disciplines. Pastor Oh's main concerns, however, are the studying and teaching of the Holy Scriptures on one side, and construction of churches and Bible schools on other side. People calls him 'a eccentric person' because of his thoroughly frugal life, but his life is very normal and biblical. He had to be looked up to as a ideal model of the devoted christian.*

전광식,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의 Regensburg대학(Ph.D.), München대학, 그리고 영국의 Oxford대학에서 고대 철학 및 신학 공부를 하고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신대학교에서 서양철학사 및 신학사상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0년에는 미국 Harvard 대학 고전학부 객원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교무처장, 기독교술동역회(DEW) 실행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가지 생각」(CUP, 1987),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철학」(이문, 1995), 「배움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CUP, 1997),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세계관, 철학, 학문에 대한 여덟가지 글모음」(CUP, 1998), 「고향: 그 철학적 반성」(문학과 지성사, 1999), 「신플라톤주의의 역사」(서광사, 2002) 등이 있다.

## 1. 들어가는 말 : 오종덕목사에 대한 자료와 과거의 연구

필자가 부산에서 고려신학대학을 다니던 1976년, 한상동 목사와 합동으로 오종덕목사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당시 오병세목사께서 집례를 하시고, 윤봉기목사께서 설교한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오종덕 목사를 거론하면 무엇보다 먼저 그 분이 교단안팎에서 기인(奇人)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분의 언행과 사역이 한국 교회사 내지 고신교단역사에서 매우 독특했기 때문이다. 오목사의 일제시대의 삶, 해방이후의 교회건립과 고등학교 운영, 그리고 성경연구의 모습, 절약의 삶이 남긴 흔적은 우리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100년 역사에서 하나의 독특한 전형(典型)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진다.

언필칭 '기인'이라 하면 독특성외에 은닉성(隱匿性)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아나나 다를까 오목사는 그 명성에 비해 몇가지 삶의 편린들, 근검절약에 있어서의 몇가지 특이한 행위 외에는 실제로 후대에 알려진 면이 많지 않다.

먼저, 오종덕 목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 눈에 띄인 것은 교단의 총회찰요나 노회의 사료(史料)등에 그의 족적(足跡)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오 목사께서 노회와 총회의 임원이 된 일이나 무슨 위원이 되어서 한 일이 별로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필자가 경북노회 창립 50주년기념위원회(위원장: 장희종목사)로부터 오목사에 대한 발표를 부탁 받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오목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겨우 교단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많을 글을 남긴 고 심군식(沈君植)목사께서 쓰신 단행본 「오종덕 목사의 생애와 설교」<sup>1)</sup>가 유일했지만, 이 글은 아쉽게도 한 인물

에 대한 연구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로는 무엇보다 먼저 그 글은 오목사의 삶과 사상에 대한 깊은 학문적 논의가 아니라 그저 스토리의 연속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둘째, 그 스토리들도 저자 자신이 오목사에게 직접 듣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변의 증언들에 근거하여 작성했다는 점, 셋째, 그러한 내용들도 사건들이 이뤄진 장소와 시간들에 대한 명시가 결여된 것이 많고 저자의 문학적이고 기교적인 표현이 너무 많이 가미되어 사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군식목사의 글은 그저 회상(回想)과 구전(口傳)에 머물러 사장(死藏)되어 버릴 뻔한 오종덕목사에 대한 그렇게나마 성문화(成文化)시켜 후대에 전승시킨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하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추후에 오 목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보다 깊은 학문적 논의를 한 체계적인 글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그분의 신앙, 그리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하나의 독특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패러다임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과 교회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오종덕목사에 대한 깊이있는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한국교회사의 관점에서 그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해 보자는 시도이며, 아울러 그의 사상과 삶 전체를 어떻게 규정해 볼까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말하자면 오종덕 목사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각론적인 연구가 아니라 총론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그간 나온 오목사의 설교집과 글, 심군식목사의 글, 교단과 경북노회의 문헌들, 고려고등성경학교의 자료들이 참고되었으며, 그리고 오병세목사, 임종만목사, 박성기목사, 무엇보다 오목사의 따님이신 오혜순권사 등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여러 사실이 참고가 되었다.

1) 심군식, 오종덕목사의 생애와 설교, 서울 1994

## 2. 역사적 위치

### 1) 박해의 시절과 양자택일의 길

우리의 논의는 무엇보다 먼저 오종덕 목사께서는 한국교회에서 어떠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놓여진다.

한국교회는 100여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성장의 굴곡을 체험하였는데, 이런 파란만장의 세기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cf. 시23: 4)' 를 지나는 것과 같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일제 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제치하는 떨리는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받은 초대교회의 시절을, 가까이는 히틀러(Hitler)치하에서 고난당하던 독일 교회와 스탈린 압정시의 박해받던 구소련시절을 기억나게 한다.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상 어떤 결단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결단은 악에 동조하고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결단인 것이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고 기술하고 있는 이들은 일제시대 한국 교회지도자들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신사참배에 찬성하거나 내면적으로 묵인해 온 부류와 그것에 반대해 온 부류로 양분한다. 즉, 한 부류는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는 미명하에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우상숭배에 동참하면서 현실적으로 타협하여 살던 Majority 그룹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나아가 그것에 대항하고 투쟁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순교자적 신앙을 지닌 Minority 그룹이었다.

### 2) 일제 치하 오목사가 걸어온 길

그러면 이런 두 부류들 가운데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오종덕 목사는

도대체 어떤 계열의 분이였는가? 이렇게 양분해 보면 물론 오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해 온 그룹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오 목사의 삶은 주남선목사와 한상동목사처럼 그렇게 현실가운데에서 신사참배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운동을 전개해 온 지도자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1934년 이후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강풍(強風)앞에 교회지도자나 성도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길 밖에 없었다. 하나는 신사 참배에 동참하여 배도와 타협의 길을 걷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여 옥중에 구금되거나 순교하는 길이였다. 하지만 이 두길 외에 다른 하나의 길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속에 머물며 참여나 반대나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머물지 않고, 그런 현실 자체를 떠나 버리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이 세 번째의 길은 이 암울한 현실을 도피하여 은둔하면서 광복과 자유의 때를 기다리는 길이였다.

오종덕목사는 이 세가지 기로(岐路)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를 두고 오래 번민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1937년 10월 3일, 대구 중앙 교회(서문로교회옆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로서 현재는 합동측 소속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오목사는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어서 평안북도 칠산군에 있는 풍천교회로 시무지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신사참배로 인해 1년도 채 안되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목사는 깊은 기도의 결과로 1938년 8월 10일 풍천교회를 떠나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sup>2)</sup> 그곳이 바로 평안남도 평원군 금산면 송양리 양지동 521번지였는 데심군식목사의 글

2) 심군식목사의 글(op.cit.)은 오목사가 이때 화전지대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오혜순권사의 증언에 따르면 화전지대가 아니라 완전한 농촌지역이었다.

(op.cit.)에는 오목사가 화전생활을 한 지역이 나와있지 않는 데,<sup>3)</sup> 이 곳에서 그는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 오목사와 그 식구들은 이곳에서 전형적인 농사꾼의 집안으로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하며 지내었다. 가물어 생활이 어려울 때 김순덕(金順德) 사모님이 비단장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씨름대회가 열렸는데, 오목사는 힘도 장사요, 기술도 있어서 씨름대회에서 곧잘 우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성경연구에 깊게 심취했다. 오목사집 뒤로는 하늘을 찌를듯한 이름드리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소나무 숲에 들어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 숲 속에서 오목사는 방공호를 파서 그 안에서 기도생활에 정진했고, 또 밤을 밝히며 연구했던 성경연구 원고들을 그 안에 감춰두기도 하였다. 이 뒷산에는 소나무의 갈비가 너무 많이 떨어져 뚝자리를 깔아놓은 듯 하였다. 이 곳에서 오목사는 전국 각지에 서 그를 찾아 모여든 교역자들에게 성경을 강론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오 목사는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가까와 옴을 이는 것처럼, 일제의 상황과 신사참배요구가 극(極)에 달해 이 시대가 오래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 기간동안, 그간 그렇게 염원하던 성경연구에 몰두하면서 때가 오면 성경을 가르쳐 이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겠다는 결심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그야말로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삶은 그가 풍천교회를 떠난 1938년에서 45년까지 무려 7여년 간의 세월이나 계속되었다.

### 3) 오종덕목사와 제3의 길

이렇게 일제 치하와 그 이후 6.25동란 때까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운데는 세 부류가 있었는데,

3) 오종덕목사가 농촌생활하며 은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순권사와의 통화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첫째는 신사참배로 영적 배도의 길을 걷던 신사참배파, 둘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당하고, 투옥되었었던 소위 출옥성도파, 셋째로 현실을 떠나 운둔하여 기도생활과 성경연구에 주력한 소위 '금강산(金剛山)파'가 있다.

이 세파 가운데 우리가 오 목사를 어디에 넣는다면 그는 아마 금강산파에 속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일제시대 말기에 당시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 속했던 목사들 가운데 금강산에 들어가 기도생활에 정진했던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은 해방이후 하산하여 1946년~49년까지 해방된 조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들이었다. 신사참배에 반대한 출옥성도들이 교회개혁 운동의 교리운동을 일으켰다면, 이 금강산파의 주된 역할은 영성운동과 부흥운동이었다.

이런 이들 가운데는 1947년 한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박재봉 목사를 위시하여 이리수, 고신에 있다가 후에 합동측의 총회장까지 역임한 박병권 목사, 그리고 부산 부전교회를 일으킨 김형식 목사 같은 분들이 있다. 이런 목사들은 금강산의 굴속에 살면서 석청(石淸)을 먹고, 산과 일과 밤을 따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며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살았다. 김형식 목사는 9년을 산에서 지내셨고(그의 부인인 문성애사모는 출옥성도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리수 목사 같은 분도 10년 넘게 산에서 지냈는데, 김형식목사의 전언에 따르면 이 이리수목사가 기도에 정진할 때에는 그 머리에 후광(後光)이 들렸다고 한다. 하여튼 이들은 초대교회 시절 저 애굽상부의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안토니우스(St. Antonius)나 바울(St. Paulus)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면 당시 이 금강산파의 기도생활과 영성운동에 대해 고신의 신학에 기초를 놓은 이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해방이후 고신교단과 합동교단과 같은 칼빈주의적인 보수적 신학의 초석(礎石)을 놓은 박형룡(朴亨龍), 박윤선(朴允善) 목사 같은 분들은 이들의 부흥운동을 부정하지는 아

니하였고, 다만 이들이 이적과 기사 등을 행하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의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신비주의적 체험에 놓일까 염려하여 공개적인 언급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그러면 우리 고신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런 계열에 속하는가?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아마 과거 무척산기도원 원장이었던 맹향식선생 같은 분이 이런 계열에 속하지 아니했다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상동 목사도 신사참배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동지역의 산에서의 집중적인 기도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여튼 오종덕 목사는 이 금강산과 수도자들들과 유사하게 은둔적 삶을 사셨지만 적어도 세 가지 점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첫째, 이들은 금욕적으로 살면서 경제적 삶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오종덕 목사는 목회지를 떠난 중에서도 경제를 소중히 여겨 농사나 비단장사 같은 것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들의 은둔적 삶은 주로 기도와 신비체험에 집중된 반면, 오목사는 성경연구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셋째, 그리고 해방이후 금강산과의 활동의 부흥운동과 영성운동으로 흘렀다면, 오목사는 성경학교를 통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경을 교육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력한 점이다.

말하자면 금강산파들은 저 고대나 중세의 수도자들의 삶과 흡사한 데 비해, 오목사의 삶은 성경중심적이었고, 또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중세수도원의 표어인 'ora et labora'의 측면은 오목사가 더 구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 3. 오 목사의 삶과 사역

#### 1) 삶의 시기

구약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의 삶을 보면 그 생애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40년은 궁정, 40년은 광야, 40년은 출애굽을 통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본다. 이와 유사하게 오 목사의 삶도 그 기간적으로는 모세처럼 균일하게 삼등분 되지 않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그의 삶은

- (1) 1925년까지의 시절(공부와 소학교교사, 축산조합서기, 곡물상),
- (2) 1945년까지의 시절(신학공부와 은둔적 삶), 그리고
- (3) 1976년까지의 시절(사역과 봉사의 삶)으로 삼분된다.

이런 그의 인생의 세시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절에서의 그의 삶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 기간동안 그의 삶을 우리는 사상과 학문, 일과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전자는 그의 생각이요, 후자는 그의 생각이 현실에서 맺은 열매이다.

#### 2) 사상과 학문

오목사의 사상과 학문은 두 가지인데, 첫째 성경연구, 둘째는 경제 철학. 오목사가 85세에 쓴 짧은 전기에 보면 그가 받은 은사는 '신구약 성경해석과 경제자립'이라는 두가지 개념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성경연구에서 오목사는 먼저, 그 자세에서는 성경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세로 임했다.

둘째, 그 시간에서는 성경을 철야로 연구, 일생 중단 없이 연구했다.

셋째, 그 방법은 주석이 없이 연구했다. 특히 오목사는 성경연구에서 성경의 조직을 파악 하려고 노력했다. 말하자면 성경의 원리를 파악하

4) 브니엘학원을 세운 박성기목사는 이부분에서 필자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조언해 주셨다

고, 그 심오한 뜻을 밝히고 난제를 해석했는데, 그런 해석의 원리는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며 그는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다. 이는 'Scriptuam ex Scriptura explicandam esse(성경은 성경으로부터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개신교의 성경원리 위에 견고히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구호는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카톨릭교회의 입장에 대해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자증적 성격을 지시하는 루터파내지 개혁파 정통주의의 구호였다. 오목사에게 있어서도 성경에 대한 해석은 성경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대로 해석될 뿐인 것이다. Scriptura Scripturam interpretatur!

다음으로, 경제철학에서 오 목사는

먼저, 그 방법에서는 많이 벌고 적게 쓰기,

둘째, 그 목적에서는 그렇게 하여 남겨서 주의 일하는 데 사용하기

셋째, 그 태도에서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사(公私)가 분명했다. 오목사의 호주머니에는 지갑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공적인 것을 위한 지갑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적인 것에 쓰이는 지갑이었다.

그의 이러한 경제철학은 바로 성경에서 이끌어낸 삶의 모습이라고 그 자신은 생각했다. 오 목사가 흔히 '기인(奇人)'이라고 불리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절약하던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한상동 목사가 별세한지 12시간 후에 소천하여 합동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죽음을 두고 '죽음도 경제다'라고 말했다.

### 3) 일과 사역

이러한 오목사의 은사, 즉 성경연구와 경제자립은 현실에서 바로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것이 곧 첫째는 교회건립이요, 둘째는 신학교

건립이었다.

교회당을 세우고 신학교를 건립하는 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오 목사는 그토록 절약하고 모은 재정으로 13교회를 설립하고 또 건축을 하는 데에 많은 헌금을 하셨다. 이렇게 오목사의 정성어린 수고가 담긴 교회들 가운데는 현풍교회, 대구중앙교회, 부민교회, 서문로교회, 성산교회, 대구서교회, 침산교회, 영주동교회 등이 있다. 그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나라의 확장자요, 한국교회의 중요한 설립자중 한분이셨다.

오 목사는 또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세우시고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이를테면 대구고등성경학교, 부산고려고등성경학교,<sup>5)</sup> 서울고려신학교, 고려신학교 등이 그의 노력으로 이뤄졌는데, 이런 기관에서 그는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교육행정적인 측면에서 핵심역할을 감당하셨고 1950년 후반에는 부산의 고려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다.

그리고 이런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려신학교 등으로 진학하여 훗날 고신측과 합동측의 여러 목사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런 이들 가운데는 일부는 은퇴하셨고, 일부는 아직까지 교회를 섬기며, 고신 교단 등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 4. 오종덕목사의 성경해석과 신학

### 1) 오목사의 성경연구

오목사는 평생을 성경연구에 바쳐 성경을 해박하게 꿰뚫은 성경박사

5) 대구고등성경학교 3학년이던 다니다가 오목사를 따라 부산으로 옮겨 고려고등성경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이 가운데는 김계초선생같은 분이 계신다.

였다. 박윤선박사가 성경주석을 하다가 관련귀절이 어느 성경에 있는지 몰라서 야밤의 우중(雨中)에 오목사를 찾은 일화는 유명하다. 박박사는 미국 등 외유를 하는 중에도 오목사를 염두에 두고 한국에는 대단한 성경 박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목사의 학문적 작업이라면 성경해석과 그것에 대한 설교였다. 특히 '성경의 조직 곧 윤곽, 다시 말하면 원리파악과 심오한 뜻과 난제 해석 이'<sup>6)</sup> 그의 은사였으며, 가장 중요한 평생의 관심사였다. 그에 의하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수천편이나 되고, 또 여러번의 소실위기 가운데서도 이 원고들은 잘 보존되어 왔다. 오목사의 평생소원가운데 한가지가 자신의 이러한 필생의 역작(力作)을 세상에 출간되어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가 소천하기 불과 수개월 전에 이뤄지게 되었다.<sup>7)</sup>

이렇게 해서 출간된 「六六권 각권 뜻 설교」는 오목사의 성경해석이나 설교의 원리, 그리고 그의 신학사상이 잘 집약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성경전체의 숲을 조감하는 총론격인 「신구약 전편으로 만든 여섯설교」로, 후반부는 신구약 각권을 요목적으로 고찰한 각론적인 「신구약 각권설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부분에 앞서 오목사는 이러한 설교를 읽는 태도를 짧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독서하는 이의 마음자세를 말하면서, 이 성경요약설교가 단순히 지적차원에서의 성경이해에 머물지 않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 태도로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세가지를 말하는 데, 즉 1) 기도와 마음준비(엡 1:17-19), 2) 읽은 후 성경과 대조하여 뜻을 검토(행 17:11, 살전 2:13 - 책에는 단순히 '살'로 표기되어 있다), 3) 소화하여 열매 맺을 것(겔 2:8-3:4, 빌 1:11) 등이다.

6) 오종덕, 66권 각권 뜻 설교, 서울 1972, 3

7) 상기서를 말하는 것임, ibid. 5: "이렇게 70년동안 작성하였던 원고를 세 번씩이나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했다가 이제 출판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 2) 성경관과 신학

전반부의 총론에서 우리는 오목사의 성경관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그는 그야말로 왜곡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통주의적인 성경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성경관을 어떤 신학자나 신학이론에 의거하여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의 관련 귀절에 근거하여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구약성경의 성격과 관계를 말하면서 구약은 '준비의 말씀'이고, 신약은 '완성의 말씀'이라고 보았으며, 이 양자의 관계를 두고 한마디로 '구약에 신약이 포함되어 있고, 신약에 구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구약말씀은 신약에서 완성으로 들어 있고, 신약말씀은 구약에 예언 또는 선취로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며, 궁극적으로 이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오목사는 구약을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사대분하여 모세오경은 '율법',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기(士記: 오목사의 표현 - 그러나 '史記'가 적절해 보임)는 '국민생활', 시가서는 '신앙체험', 선지서는 '실제교훈과 예언'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도 사대별하여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출현(구원)', 사도행전을 '복음전달(사기)', 교리서를 '이론과 실천(교리)', 계시록을 '총결론(예언)'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 및 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구약 39권은 성부 하나님과 결부된 것으로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서 네권은 성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사랑을 가르치며, 서신서와 계시록 등 23권은 성령에 속하는 것으로 소망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사도적 교부들이 주요사도들과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두고 바울은 믿음을, 베드로는 소망을, 요한은 사랑의 케리그마를 내세웠다



고 본 것과 형태상으로 유사해 보인다.<sup>8)</sup> 하여튼 오목사는 성경전체를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구약),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복음서), 나아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함(신약의 서신서와 계시록)을 가르쳤다. 무엇보다 그는 성경은 우리에게 '書自書 我自我'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함을 가르쳤다.

이어서 오목사는 구약의 삼대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그가 성화(聖化)를 칭의와 같이 은사로 이해한 점이고, 또 이 성화를 '사랑으로 받는다'고 본 점이다.<sup>9)</sup> 하지만 오목사의 신학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전반부의 마지막 항목으로 기술한 '영육의 이류(二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치 어거스틴의 「신국(De civitate Dei)」을 보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로 우선 두가지 흐름을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역사적인 구분을 하고 있음을 본다. 물론 어거스틴의 두나라는 이미 천상에서 시작되었을 정도로 우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또 다소 이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sup>10)</sup> 오목사는 인간 구원과 관련하여 구원론적으로 접근하고, 또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두 부류를 '영의 부류'와 '육의 부류'로 구분하고, 그 기원이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출발은 에덴동산이고, 여기에서 아벨과 같은 영의 자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이 부류가 역사적으로 모두 열두시기, 즉 1) 에덴, 2) 세

상(노아시대전후를 애기함), 3) 바벨, 4) 소돔, 5) 출애굽,<sup>11)</sup> 6) 가나안(모세의 죽음부터 유대의 멸망까지를 뜻함), 7) 바벨론, 8) 예수, 9) 사도, 10) 교회, 11) 환란, 12) 천년에 걸쳐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이르러서는 영의 부류는 성성(聖城)의 영복을 받게 되고, 육의 부류는 성밖의 영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보았다. 이렇게 오목사의 역사관은 철저히 성경적인 구속사관으로서 이는 어거스틴과 칼빈같은 이들을 통해서 규명된 예정설에 바탕을 두고 전대 된 것이었다.

이 저서의 후반부는 신구약 각권을 요목적으로 살피면서 그 핵심을 가르치는 강론으로 되어 있다. 그는 66권 전체를 1) 요약과 2) 보는 법, 그리고 3) 해석으로 3대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각 부분의 <요약>은 일반적으로 삼대지 또는 이대지로 정리하고 있고, 큰 대지하에 소대지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보는 법>은 일반인을 위하여 추후에 보강된 것으로서 하나의 전체적인 주제를 내어 놓고 각권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어서 <해석>은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나 난제들, 그리고 교리적 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성경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

### 3) 성경연구의 특징

이러한 오목사의 성경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중심의 성경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론적 해석은 이미 창세기의 서론에서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에 서나 민수기의 제목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표상'이라 하고, 시편의 제목을 '메시아, 만민의 군왕'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미 잘 드러난다. 그에

11) 이부분에서 책은 번호가 4번으로 오기(誤記)되어 있다

8) cf. Louis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1996

9) 오종덕, op.cit., 30

10) 「신국(神國)」에 나타나는 어거스틴의 두나라 개념은 성경적이라기 보다 그가 한 때 빠져있었던 마니교와 그 배경인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의하면 구약전체에는 메시아에 대한 표상들이 감춰져 있다. 민수기만 보더라도 '모세와 아론이 메시아의 표상이요, 만나와 반석물이 메시아의 표상이요, 놋뿔과 짝난 지팡이가 메시아의 표상이다' 라고 하였다.<sup>12)</sup>

둘째, 그는 성경을 철저히 성경으로 해석하고 연구한다. '성경이 성경의 참된 해석자' 라는 것은 정통신학의 기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구약을 성취되고 해석된 신약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신약을 구약의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고 더 깊게 해석하고 있다.

셋째, 그는 성경각권의 중심을 one-point적 개념으로 집약한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의 각권을 간명한 개념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또 정확성을 기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오목사는 성경의 각 절과 같은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부분을 꿰뚫어 보면서도 전체적인 숲을 보는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다. 각 성경에 대한 그의 간명한 이해는 주로 기독교론적이면서 교훈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느헤미아의 주제는 '호사다마' 이며, 룻기의 주제는 '곤고한 영이 안식처를 찾음' 등이다.

넷째, 평이한 문체속에 상당한 고고학적, 과학적 지식들이 원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많은 신학적 함의들이 담겨 있다. 이를 테면 아담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 어거스틴의 '자유지론에 대한 비판' 같은 사상이 담겨 있으며, 여호수아에 나오는 태양의 머뭇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오목사의 성경연구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의 설교적 적용이다. 그는 이미 해방직후부터 많은 부흥집회인도를 통하여 오랜 성경연구의 결과를 전하고 가르쳐 왔다. 독일의 신학자 Helmut Thielicke는 '설교로 나오지 않은 신학은 무의미하다' 고 했는데, 실천적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변적인 신학연구는 설령 그것이 문제가 없고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오목사의 연구들은 목회자들은 물론 성도들을 위한 설교과 교훈 등 실천적 적용을 고려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 주신' 성경의 본질을 꿰뚫은 것에서 나온 것이고, 나아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관심에서 나온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목사의 연구는 이론과 실천을 겸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결론

우리 교단은 해방이후 여러 출옥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개혁을 부르짖으며 신학교를 세우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은둔하여 성경연구에만 종사하던 오종덕 목사가 합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교단으로 봐서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1)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분이셨고, 또(2) 초창기 고신의 주요한 교회들의 설립을 도우셨으며, (3) 무엇보다 교단이 고려 신학교를 세웠지만, 이곳에 대학이나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목사후보생들이 들어와야 했는데, 이 인재 공급을 오 목사가 주도적으로 하신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오 목사는 초대교회에서의 사도 바울처럼 해방이후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위해 주신 소위 'hidden card' 였고, 특히 경북 노회와 대구 지역의 교회들은 직, 간접으로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고(故) 심군식 목사를 위시하여 여러 분들이 이 고인을 회상하면서 '기인(奇人)' 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부

12) ibid. 59

귀를 멀리했을 뿐 아니라 철저히 절약하면서 그 남긴 것을 주의 일에 썼기 때문이었다. 이런 행위가 일반적 시각에서는 '기인' 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우상인 물질주의의 영향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나의 것은 나를 위해서만, 우리의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만'이라는 구호와 정신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오 목사께서는 '나의 물질을 남에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라는 정신을 지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귀감(龜鑑)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던주의의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찬양과 영성의 감성주의적 경향이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경과 교회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적어가고, 학생들은 드럼을 두드리며 기타 치고 노래 부르나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러한 '성경소홀의 시대'에 평생 성경을 사랑하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성경교육에 바친 오 목사의 일생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시대 하나님의 공동체들에 큰 사표(師表)가 되는 인생이었다.

## 오병식 장로의 고신(고려)파 경건과 정신

Kosin denomination piety and ideology represented  
by the presbyter Oh Byung-Sik's Life

조성국 교수  
Prof. Dr. Song-Guk Joh

I. 들어가면서	_ 36
II. 오병식 장로의 생애와 봉사	_ 38
1) 출생이후 서문교회에서	_ 38
2) 서문로교회 설립과 발전을 위한 섬김	_ 41
III. 오병식 장로의 고신파 경건과 정신의 특성	_ 42
IV. 마무리하면서	_ 48
V. 참고문헌	_ 50